

은혜와 진리소식

2025년 11월 23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949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복음을 전하는 기쁨,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 강 미 경 -

저는 2012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 은혜와진리교회의 구역장이 되었습니다. 구역장 직분을 받을 때 존귀한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리 는 한편으로, 앞으로 착하고 충성스럽게 직임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되었습니다. 같은 교구에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행하는 선임 구역장님들을 보고 강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맡은바 소임을 다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세요”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항상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구원의 은혜와 진리에 관한 당회장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깊이 깨닫게 하셔서 전도를 위한 소원과 열정이 생겼습니다. 교구 전도사님이 시간을 정해서 매일 복음을 전하도록 권면하셨습니다. 교회와 구역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도 감사한 일인데 구역장 직분까지 받은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열심히 복음 전도에 힘쓰기로 굳은 결심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철역 광장에 나갔다가 용기가 나지 않아 말을 건네지 못하고 돌아서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집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얼마가 되었던 매일 전도를 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하루의 중요한 일과로 삼았습니다.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전도를 우선하기로 결심하고 힘써 실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해주시고 전도의 열매를

많이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전도하는 과정에서 복음을 귀를 기울여 듣고 교회에 꼭 나오겠다는 약속을 받아 매우 기뻐했다가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크게 실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결국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며 전도하는 즐거움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떤 분은 무더운 여름에 땀 흘리며 전도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까지 힘들여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궁금하여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감격하여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영광돌렸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마태복음 5:11,12) 전도를 위해 심방을 다니다 보면 간혹 심한 방해와 핍박으로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여 몰래 눈물을 흘리며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많이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고, 구역장 세미나에서 목사님께서 저희를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주신 말씀을 상기하였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보다 사람에게 더 중대하고 더 가치있는 일이 없고, 전도한 대상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주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생각하며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는 신령한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위로가 임하며 독수리의 날개치고 올라감 같은 새 힘이 솟아났습니다. 구역장님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해주시는 따뜻한 사랑의 말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일을 하는 구역장님들의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 또한 저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저의 집은 열심히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 다. 저는 비교적 늦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가족들 모르게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아버지가 아시고 교회에 다니지 못하게 경계하며 핍박하셨습니다. 그 당시 직장 다니면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던 저는 퇴근하면 집에 들어가기가 두려워서 그 두려움을 가라앉히려려고 교회에 들러 기도한 다음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처럼 한동안 아버지와 대화가 단절된 상태로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버지를 긍휼히 여기고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와 가족의 구원을 위한 저의 기도와

노력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전도를 극구 거절하시고 제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을 하는 것을 몹시 싫어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누그러뜨려 주시고 순하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눈치를 보느라 교회에 가지 못하고 계셨던 어머니가 드디어 교회에 나오시면서, 형제와 조카들과 사촌동생까지 차례로 우리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영접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버지도 승용차로 어머니를 교회에 데려다 주시더니, 드디어 성전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누가복음 16:16)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중단하였던 물세례식이 다시 거행되자 같이 힘을 모아서 전도하는 구역장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동안 물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과 새신자 한 분을 열심히 심방하고 세례를 받도록 적극 도와드렸습니다. 그분들이 물세례를 받을 때에 함께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결심은 하였지만 좀처럼 신앙생활이 진보하지 않아서 저의 애를 태우던 아버지와 동생도 이 때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물에서 올라오시며 밝게 웃으시고 행복해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한없이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세례의식의 의미를 생각하며 가슴이 벅차올라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였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태복음 6:33) 최근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도와주셔서 바라던 새 집을 마련하여 이사하였습니다. 살고 있던 집의 매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불가피하게 새 집에 먼저 입주하게 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교회와 교구에서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많은 분들이 기도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가족 간의 복잡했던 일과 경제적인 문제 등을 잘 정리하였고 집의 매도도 적절한 때에 잘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저에게 끝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고 주님의 일에 힘쓰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어진 전도의 사명을 열심히 수행하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이번 구역장 세미나에서 영예로운 전도특별상까지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과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착하고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역공과

제3권 (5단원 : 보혜사 성령) (제25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 본문 : 누가복음 4:1-21

• 요절 :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눅 4:1)

• 찬송 : 172장(새찬송가 183장), 174장(새찬송가 196장)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와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사 11:1~2)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령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여기서 ‘여호와와 신’,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란 칭호는 성령님을 지칭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에 대하여 일곱 가지의 칭호를 사용한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 완전무결함을 뜻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통하여 역사하신 바를 신약성경의 여러 증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역사하셨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예수님의 출생에 역사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천사가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受胎)를 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때 가브리엘은 놀라고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눅 1:35)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둘째, 성령님은 예수님의 공생애 준비에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쯤 되어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마 3:16). 이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을 보고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고 세상에 증거했던 것입니다(요 1:32~34).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후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으며,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눅 4:1~2상). 이로 볼 때, 성령께서 예수님의 공생애 준비를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성령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역사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신 것 역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롬 8:11)의 역사라고 증거합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부터 부활에 이르기까지 전생애에 걸쳐 역사하셨습니다.

2.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즈음,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회중 앞에서 읽으신 성경은 이사야서의 다음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눅 4:18~19, 사 61:1~2). 이처럼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메시아의 사역을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받아 수행하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한번은 예수님께서 귀신들려 눈 멀고 병어리 된 자를 고쳐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마 12:24)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라고 그들의 무지를 지적하신 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마 12:28)고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사역을 성령을 힘입어 수행하셨음을 보여줍니다(행 10:38).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가장 중요한 사역인 대속의 죽음 역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당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야게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히 9:13~14). 이처럼 구원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이었습니다.

3.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사역을 감당하셨을 뿐 아니라, 성령님에 대한 상세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죄인이 거듭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며(요 3:6),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압니다(요 14:16~17).

그런 한편,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요 15:26) 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도 예수님은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요 15:27)고 하심으로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을 증거할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의 증거와 성도의 증거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은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힘입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증거는 그 내용에 있어서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기 이전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 지내던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후에는 담대하게, 능력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었던 사실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복음 전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성령님은 예수님의 생애와 구속 사역 전반에 걸쳐 시종일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셨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또 다른 보혜사로서 성도들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며, 또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사도들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충성된 예수님의 증인으로 쓰임받아야 하겠습니다.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은혜와 진리교회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031-443-3731~2, 446-9184

수원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314번길3 T.031-225-3731, 234-3732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031-486-3731~2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02-502-3731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031-318-3731~2

광명 :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02-894-3731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032-507-3731~2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031-462-3731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031-716-3743, 716-7832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02-2632-3731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031-395-8227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032-469-3742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032-652-3731~2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 (중산동) T.031-906-3731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031-497-3732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031-205-3732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031-567-3731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031-422-9200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031-298-3739

전원(수양관,본관) T.031-227-5992~3, 227-3739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031-985-3731~2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031-662-3731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031-684-3731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041-555-3731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063-225-3731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031-863-3731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033-764-3735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02-459-3731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관동동) T.055-312-3731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031-337-0688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032-751-3731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41번길 30 T.042-471-3736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168 T.031-763-3720

남양 :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031-355-3729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053-522-3731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041-667-3731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북로 55 (천천동) T.031-271-3731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031-8015-3731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041-353-3731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044-862-3732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063-239-1004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삼서면 내린천로 2572 T.033-463-1312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46-5 (황성동) T.054-772-7867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041-534-3731~2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043-848-3731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031-662-3731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063-351-7518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055-752-6675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041-533-3731